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코로나19와 아동 돌봄의 쟁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장/연구위원

코로나19 감염위기가 고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됨에 따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자녀 돌봄을 위해 그 간의 양육방식과는 다른 돌봄을 선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정내 돌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감염 팬데믹 하에서 자녀 직접돌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일-가정 양립과 자녀돌봄으로 인한 긍·부정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감염과 같은 위험요소가 일상화 된 재난 상황에서의 돌봄체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데이터가 보이는 돌봄의 단면을 통해 향후 돌봄정책의 방향에 도움이 되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양육가구의 가정내돌봄 현황¹⁾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 감염의 예방과 확산의 방지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육아지원 공공인프라와 학교에 대해 휴원/휴업/휴관 조치를 실시한 이후, 약 2~3주 간격으로 총 6차례 이상 휴원 조치를 연장하였다. 이는 사실상 개별가정으로 회귀하는 가정내돌봄에의 강력한 권고로 감염 팬데믹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긴요한 대응이나, 코로나 19 이전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한 흐름에 일종의 유예된 기간으로 감염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자녀돌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휴원·휴업기간 아동 돌봄의 실제와 이에 대한 수요자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3월말(2020. 3. 25~3.

* 이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 2020)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1) 「육아정책 Brief 81호 -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2020. 4. 14)」 내용을 기초로 작성

27)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주 양육자(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코로나19로 인한 자녀양육가구의 사회경제적 변화

코로나19 감염위험의 발생 이후 전반적으로 자녀양육가구의 소득과 근로시간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계소득 감소에 대한 체감이 크고, 부모 학력에 따라 부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응답에도 차이를 보였다.

집안에 있는 시간(85.5%)과 자녀와 보내는 시간(72.2%), TV/미디어 사용(77.8%)과 온라인 소통시간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부모-자녀 관계(39.7%)와 부부관계(20.9%)가 좋아졌다는 긍정응답이 보고되었다. 관계가 나빠졌다는 부정적 응답은 부모-자녀 관계(6.6%), 부부관계(10.3%)로 나타나 긍부정의 관계 경험이 공존하는 가운데 긍정적 영향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경제활동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감소에 대한 체감이 더 크고(5점 평균 2.67점 vs. 2.37점;

줄어들: 특별재난구역 26.3%, 다른지역 19.3%), 부의 경제활동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2.78점 vs. 2.64점; 줄어들: 특별재난구역 43.6%, 다른지역 29.3%). 취약특성(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을 가진 경우(N=45), 그렇지 않은 가구와 비교하여 부모-자녀관계(취약가구 14.2% 비취약가구 5.2%)와 부부관계(취약가구 20.4%, 비취약가구 9.4%)에서 코로나사태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부정적 응답이 좀 더 많았다.

나.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전-후 자녀돌봄 및 서비스 이용 변화

가) 돌봄공백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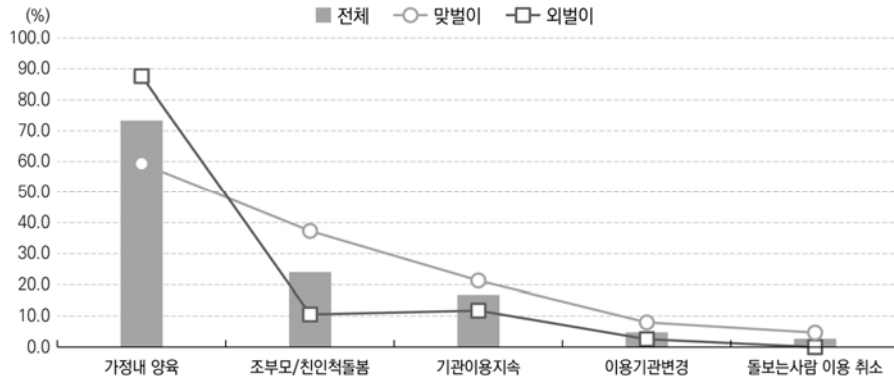
코로나 상황 전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 기간 개별가정의 자녀돌봄은 변화없음에서부터 다양한 양육방식 선택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폭이 크고, 자녀의 연령과 가구특성, 지역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휴원/휴교 기간 동안 ‘돌봄공백’을 경험했는지 질문한 결과(‘낮시간 자녀를 돌볼 사람/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지’로 질문), (어느 정도+상당히) 그렇다 36.2%, (전혀+별로) 그렇지

〈표 1〉 코로나19로 인한 자녀양육가구의 경제적/시간/관계 변화: 5점평균(n=564)

단위: 점

가구소득	부 근로소득	모 근로소득	가구지출	자녀양육비 지출	부 근로시간	모 근로시간
2.61	2.70	2.71	3.12	3.01	2.85	2.78
자녀와 보내는 시간	집안에 있는 시간	TV/미디어 이용 시간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4.07	4.46	4.18	3.45	3.15		

주: 상당히 줄어듦/나빠짐 1점, 약간 줄어듦/나빠짐 2점, 변화없음 3점, 약간 늘어남/좋아짐 4점, 상당히 늘어남/좋아짐 5점으로 응답한 평균임.
자료: 최윤경 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지원방안 연구. 이하 동일



주: 육아정책 Brief 81호(2020. 4. 14).

[그림 11] 휴원 이후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 전체아동(만0~8세)

않다 63.8%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약 절반(49.4%), 외벌이가구의 약 20%이상(21.2%)이 휴원/휴교 기간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특별재난구역과 취약가구에서 돌봄공백 경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특별재난지역 41.8%, 특별재난지역 외 34.8%; 취약가구 46.9%, 비취약가구 35.1%).

나) 서비스 이용 변화

코로나 상황 전후로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 59.0%,

그렇지않다 41.0%로 응답되었다. 기관을 다니지 않고 주로 가정내양육을 한다(73.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에게 도움을 받음 24.0%, 자녀가 다니던 기관 이용을 지속함 16.8%, 기존에 이용하던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이용 4.8%, 돌보는 사람 이용을 그만둠 2.7%로 나타났다(n=333, 중복응답 기준).

특별재난구역, 읍면지역, 맞벌이가구, 취약가구, 그리고 부모 고졸이하 학력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감염 위험 상황에서 맞벌이와 같

<표 2> 휴원기간 전-후 가정내 자녀돌봄(2월말 vs. 3월말)

단위: %

구분	코로나 전-후 시점	부모 직접돌봄	아버지가 주로 돌봄	어머니가 주로 돌봄	부모 함께돌봄	조부모/친인척 돌봄
영아자녀	전	33.2	3.6	29.2	7.9	18.6
	후	39.5	7.5	36.8	12.3	20.9
유아자녀	전	15.0	1.4	13.6	4.3	6.4
	후	38.2	10.0	29.6	15.0	26.4
초등자녀	전	24.4	5.0	20.1	4.3	12.6
	후	44.7	7.0	35.2	7.7	20.3

주: 중복응답 기준. 영아(n=253), 유아(n=280), 초등1~3학년(n=443).

〈표 3〉 휴원기간 전·후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2월말 vs. 3월말)

단위: %

구분		아이 돌봄	민간 베이비시터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시간제 보육/돌봄	육아종합 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육아 공동체	자녀혼자 있음
영아	전	2.8	2.0	23.7	2.8	2.0	3.6	2.0	1.2	2.4
	후	3.2	2.8	13.0	1.6	3.2	4.0	2.4	3.2	2.4
유아	전	2.1	.7	33.9	18.2	2.5	2.5	1.8	1.4	2.9
	후	3.9	5.0	14.3	6.4	3.6	2.1	2.1	2.1	5.0

구분		초등 돌봄 교실	지역 아동 센터	온종일 돌봄	학원· 학습 관련	학원· 예체능	학원외 : 기타	공공 기관/ 인프라	문화/ 오락/ 체험	자녀 혼자 있음
초등	전	.2	5.9	10.8	20.1	2.5	1.1	6.8	6.5	.9
	후	5.2	2.5	2.7	7.4	5.6	12.2	2.9	3.4	8.6

주: 중복응답 기준(모름/기타응답 제외). 영아(n=253), 유아(n=280), 초등1~3학년(n=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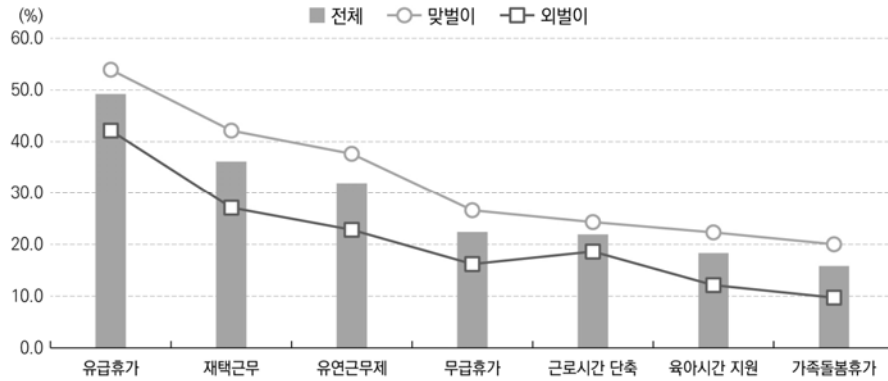
은 근로 상황 외에, 가구의 취약특성과 지역여건이 코로나로 인한 자녀돌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즉 돌봄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부모직접돌봄이 우세한 가운데, 조부모/친인척의 도움과 긴급돌봄의 이용이 주요한 양육지원체계로 작동하였다. 취학전 영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긴급돌봄 이용률이 초등저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3월말 조사시점 영유아의 경우 맞벌이가구의 약 25%, 외벌이가구의 약 9% 이상이 긴급돌봄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²⁾ 조부모/친인척 돌봄이 감염위험 상황에서 영유아 자녀 돌봄에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맞벌이가구 37.1%, 외벌이가구 8.0%).

가정내 자녀돌봄에서 부모직접돌봄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모의 돌봄 비중이 크게 늘어난 성별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부의 돌봄과 부모 함께돌봄의 비중도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 이용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감염위험 심각단계에서 기타 서비스의 이용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 1~3학년 아동의 경우 부모직접양육과 조부모 돌봄이 증가하고 사교육 이용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해 자녀 혼자 있는 경우가 8.6%, 사교육 이용이 10% 내외를 보였다. 초등자녀에 대한 양육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인지 영유아기에 비해 긴급돌봄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긴급돌봄 이용이 상승세를 이어간 점과 조사시점이 사회적거리두기의 감염위험 심각단계임을 고려할 때 이후 기타 돌봄서비스의 이용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돌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이후 어린이집·유치원의 긴급돌봄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월말 전국 평균 70%를 상회함.



주: 항목별 '소극적+적극적으로 활용' 응답을 합친 결과임.

[그림 2] 휴원 이후 자녀 양육 서비스 이용 실태 - 맞벌이/외벌이 가구

2. 자녀돌봄 지원·제도 이용 현황

가. 자녀돌봄 관련 지원·제도 이용 현황

휴원 기간 제공된 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본인직장 기준, n=284) 물품지원(53.2%)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유급휴가(49.2%), 재택근무(36.1%), 유연근무제(31.9%),

무급휴가(22.4%), 근로시간단축(21.9%)과 육아시간 지원(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신규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3월말 시점 조사참여가구의 15.8%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기간 확대 등으로 돌봄휴가 이용은 증가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육아지원인프라의 휴원 조치 이후 취업부모가 자녀돌봄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유급휴가로 나타나고 무급휴가의 사용도 적지않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을 위한 지원제도의 이용을 제고하는 방안이 긴급돌봄체계 하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상기한 자녀돌봄 관련 지원과 유연근무제의 적용은 (물품지원을 제외하면) 외벌이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이용률이 일관되게 높았으며, 유급휴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에 비해 모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자녀돌봄 지원 제도의 이용에서도 성별 차이를 드러냈다. 부의 이용률은 약 15~50%로 나타났다.

〈표 4〉 휴원 이후 자녀돌봄 관련 지원·제도 이용률

단위: %

항 목	전체 (N=284)	부모	
		부	모
물품지원	53.2	50.5	59.7
유급휴가	49.2	49.5	48.3
재택근무	36.1	33.4	42.7
유연근무제	31.9	31.5	33.0
무급휴가	22.4	22.2	22.9
근로시간 단축	21.9	20.2	26.0
육아시간 지원	18.3	15.5	24.6
가족돌봄휴가	15.8	14.3	19.3

주: 본인직장기준 응답. 항목별 비 해당 응답 제외 후 '소극적+적극적으로 활용' 응답을 합침.

나. 자녀돌봄 지원·제도 선호도

3월말 시점 현재와 같은 감염 위험 상황 및 휴원 기간 동안 자녀양육 전반에 도움이 되는 항목 두 가지를 부모에게 선택하게 한 결과, ‘부모직접돌봄(38.1%)’과 ‘아동수당 추가지원(31.4%)’에 대한 응답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 돌봄(17.0%)’이 나타났다. 이어서 ‘재택근무(16.3%)’와 ‘가족돌봄휴가(14.5%)’, ‘유급휴가(12.4%)’,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6.0%)’, ‘유연근무제(4.4%)’, ‘육아시간지원(2.3%)’순으로 응답되었다. ‘어린이집 이용’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2%였으며, ‘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은 각 2.0%로 응답되었다.

부모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제도와 현재 정책 설계 및 지원·제도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재택근무와 가족돌봄휴가, 어린이집 긴급돌봄 이용에 대한 긍정 응답이 일정비율을 보였다.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의 긴급돌봄 이용률이 상승세를 유지하여 5월말 긴급돌봄 이용률 전국 평균 70%를 상회하고, 6월 시점 모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등원과 개학이 시작되어 지역별로 부분 또는 전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계속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돌봄서비스 병행 이용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3.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아동돌봄의 쟁점

1) 가정내 돌봄역할 수행의 성별격차 여전, 그러나 부의 참여 또한 증가세

감염위험 확산으로 가정내돌봄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자녀돌봄 역할이 가중되는 성별 편향과 격차가 나타났으며, 특히 맞벌이가구와 취업모의 돌봄역할 수행과 그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부의 자녀돌봄 참여와 관련된 지원·제도의 이용이 일정수준 이상을 보이며 그 격차는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육아지원의 시간지원 확대와 자녀양육과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져온 긍정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육아지원 정책의 영향이 누적됨을 고려할 때, 관련 지원 제도와 서비스를 부모가 함께 이용하고 자녀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미세한 제도적 보완과 인센티브의 제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2)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돌봄 체계 정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위험이 확산되는 시점 기관 대상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함께 긴급돌봄의 운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직원의 고용 유지에 당장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수의 감소와 감염 팬데믹 기간이 길어진 영향으로 인해 개별 가정에서는 양육수당을 수령하고 가정내 돌봄을 위해 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가 영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아기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대한 검토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돌

봄 체계 전반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예: 교사대아동비율, 공간기준 등)을 정비하는 보다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3) 공식·비공식 분야 다양한 돌봄서비스 이용에 내재된 수요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이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휴원·휴교 기간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동 혼자 있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자녀돌봄을 선택한 비중 못지않게 기존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거나 돌봄공백을 경험, 또는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재된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제공과 운영의 확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 감염위험단계를 고려하여 방역이 보강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보육·교육 교직원 및 돌봄인력의 전문화, 양질의 서비스 제고 노력 지속

감염위험이 확산되는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은 육아지원에서도 상시 대비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과제

로, 코로나19 이전에도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 가능한 질병 및 감염상황에 대비한 매뉴얼과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이 제한되는 감염위험 심각단계에서도 반드시 일해야 하는 필수 직종(essential work)의 범위가 세분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을 비롯하여 필수 직종에 종사하는 인력의 자녀돌봄을 위해 아동돌봄의 서비스와 인력 또한 상시 운영이 필요한 직군으로 포함되어 있다.

육아지원체계에서 질병과 감염을 예방하는 서비스 운영 기준 외에, 취약전 교육·보육·돌봄의 형평성 이슈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 상황에서의 돌봄서비스는 휴원·휴업 지침 외에 방역기준이 강화된 보다 적극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는 세부 기준을 필요로 한다. 즉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체계는 감염위험의 단계별 상황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서비스의 질과 안정적인 인력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안 과제를 우선순위로 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발간중).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Brief(2020.04.14).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